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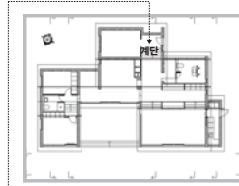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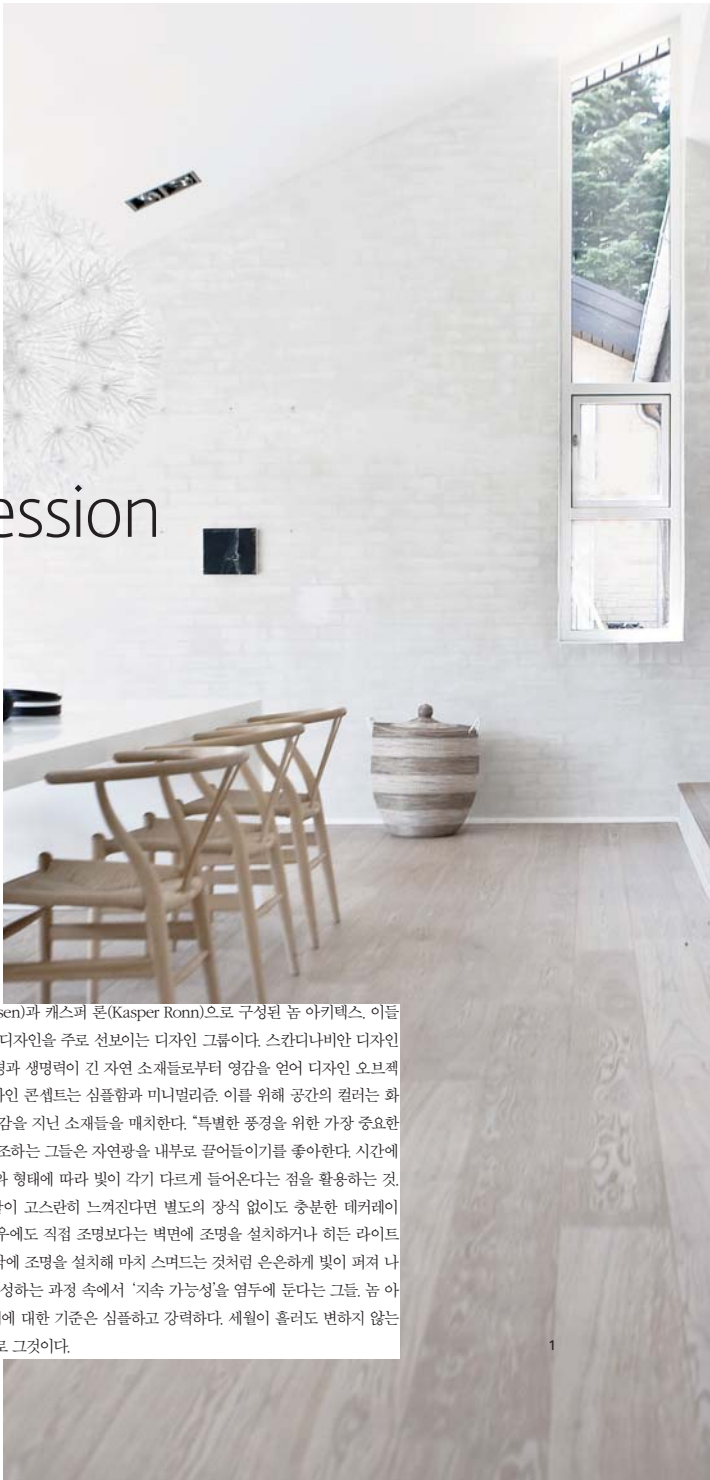


디자인 그룹, 놴 아키텍스의
하우징 프로젝트 5

White Impression

화이트 컬러와 내추럴한 소재, 심플한 라인으로 대변되는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덴마크의 건축&디자인 그룹, 놴 아키텍스(Norm Architects)는 이러한 디자인 전통을 충실히 반영한 공간들을 선보인다. 그들이 완성한 5개의 하우스 프로젝트를 통해 북유럽의 여유와 휴식, 영원함의 의미를 찾는다.

디자인 듀오, 조나스 브제레-폴센(Jonas Bjerre-Poulsen)과 캐스퍼 룬(Kasper Ronn)으로 구성된 놴 아키텍스. 이들은 주거 공간 및 상업 공간 인테리어와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을 주로 선보이는 디자인 그룹이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전통의 기반 위에 세워진 디자인 그룹답게 노르딕 풍경과 생명력이 긴 자연 소재들로부터 영감을 얻어 디자인 오브젝트와 인테리어를 완성한다. 이들의 가장 핵심적인 디자인 콘셉트는 심플함과 미니멀리즘. 이를 위해 공간의 컬러는 화이트를 중심으로 하고, 나무나 벽돌 같은 개성적인 질감을 지닌 소재들을 매치한다. "특별한 풍경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 공간의 형태를 규정하는 것은 바로 빛"이라고 강조하는 그들은 자연광을 내부로 끌어들이기를 좋아한다.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태양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창 위치와 형태에 따라 빛이 각기 다르게 들어온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 빛이 스며들어 돌과 나무를 비롯한 자연 소재의 질감이 고스란히 느껴진다면 별도의 장식 없이도 충분한 데코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인공광의 경우에도 직접 조명보다는 벽면에 조명을 설치하거나 히든 라이트(Hidden Light) 방식을 선택한다. 이것은 벽면 뒤나 바닥에 조명을 설치해 마치 스며드는 것처럼 은은하게 빛이 퍼져 나오도록 하는 방식이다. 모든 디자인과 공간, 구조를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는 그들, 놴 아키텍스가 지닌 기능성, 아름다움, 퀄리티, 디테일, 소재에 대한 기준은 심플하고 강력하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축과 내구성 있는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다.



1 Fredensborg House

고요와 평온을 위한 워킹 하우스

남부 유럽에서 영감을 받은 프레덴스보르그 하우스(Fredensborg House)는 각각의 공간이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직사각형 구조다. 한눈에 240㎡에 달하는 웅장한 크기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3층으로 이뤄진 각 공간들을 돌아보며 그 볼륨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다. 블랙 조명으로 포인트를 준 중앙 계단은 이 집의 가장 큰 특징. 이곳을 중심으로 마스터 베드룸, 거실, 키친과 다이닝 공간이 양쪽으로 펼쳐진다. 고요함과 평온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인테리어 디자인 목표. 이를 위해 콘트라스트가 강한 소재보다는 풍부한 자연환경 속에서 얻은 내추럴한 로컬 소재들을 주로 활용했다. 외관은 옐로 타일과 벽돌, 블랙 컬러로 페인팅한 우드 등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일본식의 지붕 형태로 마무리했다.

Designers Jonas Bjerre-Poulsen & Kasper Ronn
Area 240㎡ **Completion** 2010
Photographer Jonas Bjerre-Poulsen

1 웅장한 높이의 천장이 돋보이는 공간에는 작은 형을 통해 빛이 들어오도록 했다. 인상적인 블랙 조명과 어우러진다. 2 경사진 천장과 시간에 따라 각기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빛을 염두에 두고 만든 다이닝 룸. 3 리빙 공간에서 키친 끝으로 이르는 길이는 18미터에 달한다. 4 메인 출입구에서 바라본 중앙 계단.



2 Penthouse in Frederiksberg

스위트 룸의 안락과 편의를 담은 공간

'스페인에 사는 덴마크 커플을 위한 프라이빗 호텔 스위트' 이 공간의 리노베이션 아이디어는 바로 이것이다. 여행을 많이 하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평화롭고 순수한 공간을 만들어 휴식할 수 있도록 한 것. 모든 공간에 마치 벽면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듯한 느낌의 히든 라이트(Hidden Lights)를 적용했다. 최소한의 가구와 램프 등으로 깨끗하고 심플한 느낌을 주었다. 인텔리전트 홈콘트롤 시스템을 장착해 아이폰으로 집 안의 모든 조명을 컨트롤하고, 에어컨과 벽난로를 켜거나 끌 수 있다.

Designers Jonas Bjerre-Poulsen & Kasper Ronn
Area 74㎡ **Completion** 2010

Photographer Jonas Bjerre-Poulsen

1 두 명이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한쪽 벽면에서 다른 쪽 벽면까지 이어진 거대한 테이블을 놓을 준비했다. 2 배우를 위한 파우더 룸처럼 거울 위쪽에서 빛이 나오도록 해 공간을 부드럽게 하고,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부여했다. 3 답답함 대신 부를 확보하도록 두 개의 출입문을 없앤 거실.



3 Vedbaek House

시간을 간직한 계단이 있는 집

덴마크 코펜하겐에 완성한 이 집은 굴뚝을 제외한 모든 벽면을 허무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마쳤다. 그러나 100년이 넘은 낡고 아름다운 계단은 그대로 두어 자연스럽게 각 층으로 리드하는 역할을 한다. 지하에 마련된 웅장한 와인 셀러도 이 집의 포인트. 공간을 모두 드러내는 대신 냉장고를 넣기 위한 작은 룸을 만들고, 주방의 작업 공간 일부를 감추는 방식으로 키친과 거실 공간을 매끄럽게 연결시키고 있다.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인 천장에는 추가 조명을 설치해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빛을 반영했다. 이로써 외부와의 독립성을 이끌어내고, 내부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효과를 거둔다. **Designers** Jonas Bjerre-Poulsen & Kasper Ronn **Area** 000㎡ **Completion** 2010 **Photographer** Jonas Bjerre-Poulsen

1 이 집의 포인트인 2층으로 올라가는 나선형 계단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가 보이는 거실 천장. 2 외부의 빛이 충분히 들어오도록 만든 주방 색선. 3 천장에서 빛이 들어오는 독특한 형태의 다이닝 공간. 낡은 벽난로는 그대로 두었다.



4 Artist House

작업과 휴식을 위한 인스피레이션 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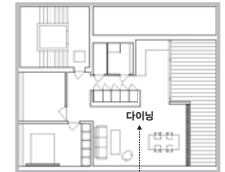
자신만의 안식처, 영감을 주는 아름다움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바라는 아티스트를 위해 리모델링한 집. 루이지애나 뮤지엄(Louisiana Museum of Modern Art in Humlebæk) 부근, 전원 풍경과 물을 가까이에 둔 최적의 장소에 위치한 아티스트 하우스다. 이곳을 리모델링하면서 가장 염두에 둔 건 스튜디오 겸 주거 공간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해 풍부한 빛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모던한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벽돌로 된 벽면에는 화이트 컬러를 입히고 콘크리트 플로어 위에는 에폭시를, 거대한 스틸 빔은 거두어냈다. 목직 한 나무 끝조는 그대로 노출시켜 심플한 화이트 벽면과 대비를 이루도록 한 개성 있는 공간이다.

Designers Jonas Bjerre-Poulsen & Kasper Ronn **Area** 100㎡ **Completion** 2009
Photographer Jonas Bjerre-Poulsen



2

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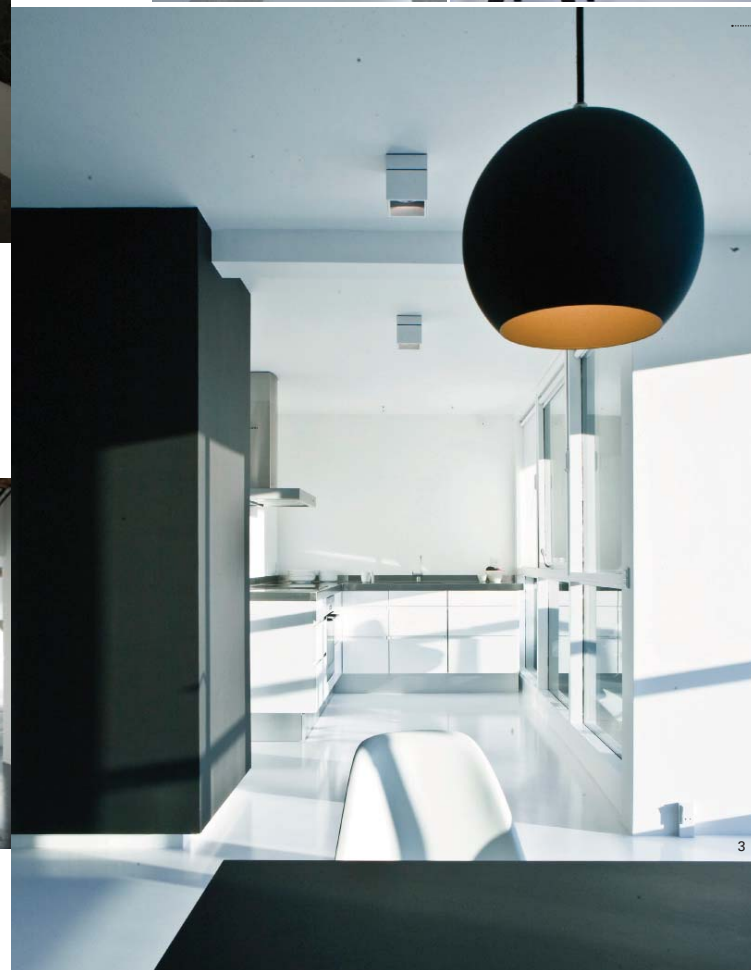
Copenhagen Penthouse II 블랙 컬러와 히트 피니처를 활용한 심플 스페이스

코펜하겐의

프레데릭스베르그(Frederiksberg)에서는 보기 드문 고층 빌딩에 위치한 펜트하우스. 매력적인 도시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아파트는 미니멀리즘과 풍부한 빛을 테마로 했다. 보조 벽면 일부와 문을 제거해 공간감을 주고, 천장의 원형이 드러나도록 해 한층 탁 트인 느낌을 준다. 플랫 스크린이 설치된 거실의 월 장식은 화이트 컬러의 벽면, 바닥, 천장과 완벽한 대비를 이루는 블랙으로 마무리했다. 그 뒤편으로 수납공간들을 마련해 심플함을 더했다. 패널리나 도어 핸들 등의 디테일까지 최소화해, 클라이언트의 바람처럼 '스트레스를 덜고 정신적 휴식을 이룰 수 있는' 화이트 공간으로 탄생했다.

Designers Jonas Bjerre-Poulsen & Kasper Ronn **Area** 84㎡ **Completion** 2009
Photographer Jonas Bjerre-Poulsen

1 좌우로 깊도를 조절할 수 있는 플랫 스크린이 장착된 월 장식. 뒷면은 수납장이다. 2 데크 쪽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블랙과 화이트의 대비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다이닝 공간. 3 플랫과 화이트의 단조로움을 없애주는 것은 바로 빛이다. 풍부하게 스미는 빛을 통해 공간이 확장되고, 독특한 문양들이 생겨난다.



3